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참가업체 탐방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WONYANG Architectural Design Group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전시장 촬영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원양건축

지난 2008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대한 건축사협회와 한국경제TV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이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 문화, 도시, 환경,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건축전문전시회로 개최 3회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2008년 전시회는 물론 지난 2006년, 2007년 전시회에도 상당수의 건축

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사 홍보와 함께 일반관람객에게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시켜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여하여 한국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무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특집을 마련해 연재한다.

- 편집자주

원양건축은 1981년 창립된 건축설계, 감리 전문회사입니다.

- 건축계획, 설계, 감리, CM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고급인력과 참신한 디자인, 철저함 조직운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원양건축은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 프로젝트개발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토털서비스를 창조적인 사고와 책임감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양건축은 미래지향적입니다.

- 첨단 설계기법 도입과 최신기술의 꾸준한 연구로 항상 앞서가는 설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양건축은 건축주의 만족뿐만 아니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립 스토리 : 창립부터 현재까지

원양건축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 공간 창조'라는 기업이념으로 지난 1981년 설립되었다. 원양건축은 첨단 설계기법 도입(국내 최초 빔 기술 시도)과 꾸준한 연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작으로 건축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건축이 지닌 상호작용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면을 극대화시켜 국내 최고의 건축 디자인 펌(Firm)으로 자리 잡았다.

원양건축의 전환점은 지난 1996년 IMF를 맞으면서이다. 어려운 시기, 존폐의 위기에서 힘을 합친 직원들이 120억 원 가량의 '을지로 2가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15명이던 직원 수는 꾸준히 증원되었고, 현재의 원양건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제 중견 건축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은 원양건축은 국내, 외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기업으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계 건축계의 흐름을 분석하고 건축 공간의 패턴이 '세계위주'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맞춰 원양건

축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해외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베이징지사를 설립하여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중국 주요도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두바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동권과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활발하게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양건축이 이루어 놓은 주요 작품으로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일산 KINTEX, 공군회관,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등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 대다수이다. 이를 비롯하여 전시, 업무,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장르의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원양건축은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리, CM, 도시계획, 해외설계 등 건축문화 전반에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각 파트별 세분화된 전문 디자인 조직은 매년 다수의 설계공모에서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원양건축의 디자인 지향점과 프로세스, 콘셉트를 살펴보았다.

기업 이념 및 Vision

원양건축 이종찬 회장의 건축철학은 '기본에 충실하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일수록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을 잃지 않기 위해, 건축사들은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는 온화함을 건축물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회장은 강조한다. 이때의 온화함이란 건축사가 건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구축물을 사람들에게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과 인간, 자연의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종찬 회장은 "자연스러움을 벗어난 미(美)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화려한 외형만을 추구하여 주변 환경을 무시한 건축물은 퇴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은 "놓아질 대지와 드나드는 사람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어울림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어울림은 건축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비롯되며, 건축의 시작은 건축사의 철학에서부터 발한다.

이 회장은 "공학도들에게 철학은 별개의 학문이 아니며, 공학을 행함에 있어 그 시작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와 자연의 섭리, 인간의 존엄성을 두루 살필 줄 알 때 그 발 딛음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전한다. 이 회장은 "제대로 된 책 한 권 구할 수 없었던 젊은 시절, 한자 한자 되새기며 읽었던 철학서들이 지금 원양건축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며, "일시적인 화려함보다 자연스러움이 제대로 스며 있는 아름다운 건축이 원양건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사람을 생각하고, 자연을 담아 기본에 충실한 건축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척도임을 이 회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30여 년이 넘는 공력을 체득한 자신감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원양은 젊다. 물리적인 인원구성의 연령이 낮아서 젊은것이 아니다.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백이 있기에 그러하다. 이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끊임 없이 강조"한다. 이러한 이 회장의 마인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과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 회장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여,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랜 격언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은 이 회장에게 있어 당연한 수리이며, 현재진행형이다.

이 회장은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는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하여 좌절하지도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는 투자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로 배우는 교훈을 어떠한 이익보다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직원들은 모든 프로젝트에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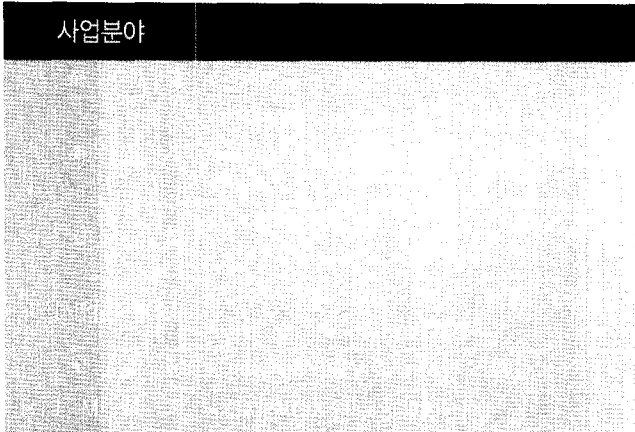
프로젝트별 팀장이 배정되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회장 개인의 자세한 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회장이 개입하는 순간 앞으로 펼쳐질 프로젝트는 그의 기호에만 치중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배석한 김태명 소장은 "회장님은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직원 모두가 원양건축의 대표 건축사가 되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귀띔했다.

이 회장은 노자의 도가사상 중 비움의 슬기로움을 예찬한다. "비움이 있어야 채워짐이 있다."는 것이다. 비움과 채워짐은 음양의 조화에서 비롯되며, 만물은 음양의 조화를 거스를 수 없다. 건축물 또한 음양의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며, 그 공간은 건축사가 비워 놓은 해안과 찾아드는 사람이 채워야 할 감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회장은 "비움의 공간으로 만나는 해안과 감성은 서로의 공간을 채워주고, 채워가며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 간다."고 말한다. 공간의 채워짐은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라는 '느림의 템포'이다. 이 회장은 '느림의 미학'을 신봉한다. 그 느림에는 "자신 있게, 단단하게, 제대로 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제대로 걷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장애물에 부딪혀도 튼튼하게 다쳐온 몸이라면 그 고비를 가뿐히 넘길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은 닥쳐올 장애물이 두렵지 않다. 경험으로 생긴 지혜가 자신감을 돋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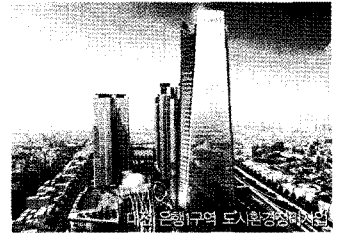
이 회장에게 있어 비움의 공간과 느림의 시간은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혜의 과정이다. 일이 있어 행복하고 이제 겨우 건축의 일면을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종찬 회장의 '비움과 느림의 미학'은 원양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주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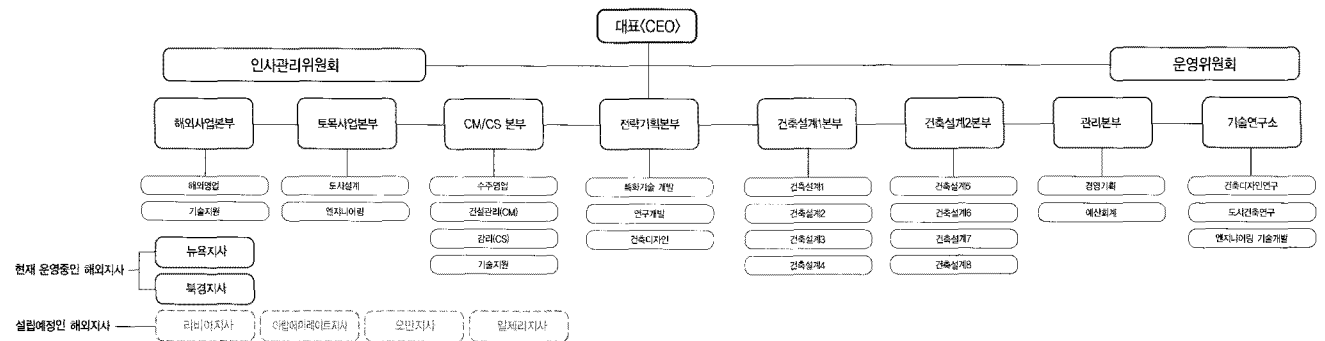


최근 성과_2008 원양 프로젝트

김포수기마을 힐스테이트(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공동주거부분), 에너지 효율 대상 | 제주 서귀포 종합문예회관(2008) 현상설계 Prize winner | 국립 영산강 고고학박물관(2008) 현상설계 Prize winner |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2008) 지명현상 Prize winner | 하이원 리조트 호텔 T,K(2008) 턴키 Prize winner | 레이크사이드 C.C 클럽하우스 신축(2008) 현상설계 Prize winner | 안양덕천지구 재개발T,K(2008) 턴키 Prize winner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2007) 현상설계 Prize winner | 동남권역 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2006) 턴키 Prize winner | 한국국제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특선 | 대전 은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005) | 상봉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2005) | 서울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T,K(2005)



조직도



대표이사



이 중 찬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6)
- 도시개발공사 설계자문위원
-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
- 대한건축학회 이사
-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명예회장
- 서울 산업대학교 건설대학 명예대학장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성 진 용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84)
- 한국태양에너지 학회 이사
- 한국FM학회 이사
- (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이사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승 연

- 서울 산업대학교 졸업(2003)
- 중앙대학원 도시건축전공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 기 성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90)
-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한국경관협회 이사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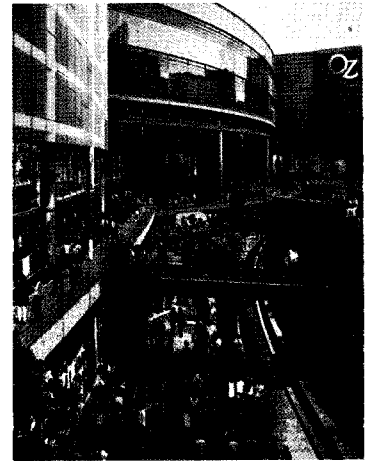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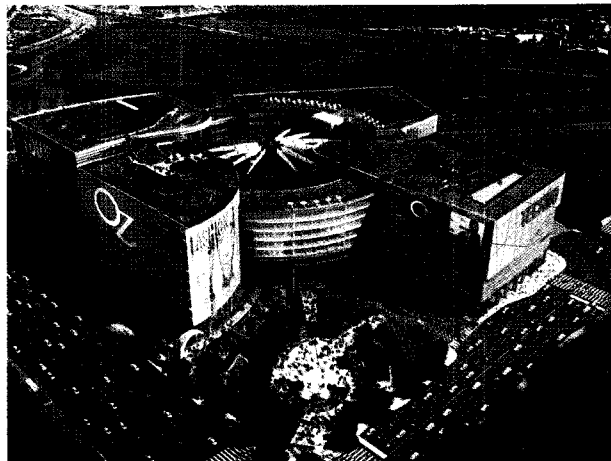
임원진

성명	홍운호	구윤철	이장백	박근우	안홍준	임보규	김성기	장순택	김용표	이서영	방명석	오경화	김기상
직책	감리본부장	해외본부장	부사장	전무	전무	상무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가블럭 건설공사

Dongnam District Shopping mall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지역/지구	유통상업지구,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상업시설
대지면적	41,810.00㎡
건축면적	25,037.55㎡
연 면 적	423,841.56㎡
건 폐 율	59.88%
용 적 률	583.65%
규 모	지하5층, 지상1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	알루미늄시트, 파스텔 복층유리
설 계 팀	대표: 성진웅, 박기성 박근우, 장순택, 김영진, 정주찬 김하영, 김대훈, 박해광, 이정우 박정만, 송윤희, 김기범, 류정철 김치권, 김병진, 김동휘, 김 성



흡입력 있는 중심공간

유통단지의 녹지블 단지 전체로 연결하는 녹지축과 장지역, 버스정류장, 장지천 그리고 나블럭을 연계하는 보행축을 연결시켜, 어디서나 접근이 원활하고 흡입력 있는 사통팔달의 쇼핑몰을 의도하였다. 4개 동 중앙부분의 대규모 광장은 상가별 5일장,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질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이용객들을 각각의 테마관으로 안내하는 중심공간이 될 것이다.

도시의 새로운 상징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볼륨계획으로 친근감 있는, 도시의 새로운 상징적 쇼핑몰이다. 네 개의 테마관은 각각의 주제(직물, 디지털, 속도, 리듬)를 가진 입면계획으로 펼쳐진다. 이는 다방면의 인지성과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쇼핑몰이며, 축제의 이미지가 외부로 표현되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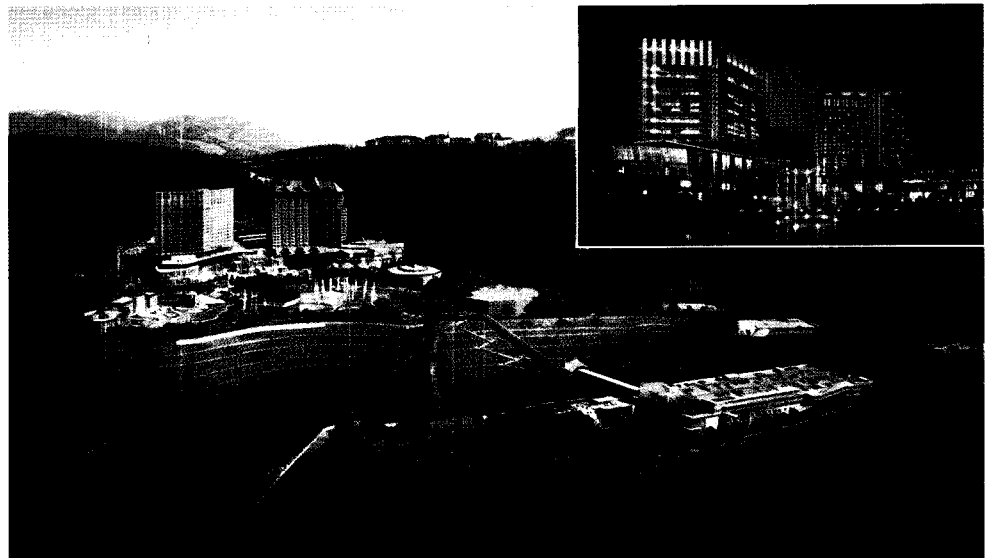
하이원 리조트 호텔

High 1 Resort Hotel Extension and One Stop Service Center

대지위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호텔 및 행정 지원시설	원스톱 서비스센터
-----------------	--------------

대지면적	121,016.87㎡	26,953.82㎡
건축면적	9,173.61㎡	9,359.77㎡
연 면 적	44,170.53㎡	32,187.76㎡
건 폐 율	7.58%	34.73%
용 적 률	36.50%	116.71%
규 모	지상 21층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골(SRC)구조	RC구조
주요마감	THK 24 칼라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패널, 아연도 불소수지 강판	
설 계 팀	대표자: 이종찬, 성진웅, 박기성 박근우, 박노현, 최강석, 박주인 이정우, 이창동, 이영희, 박정만 임준형, 원해란, 정우정, 정병용 류정철, 정대용, 이동규, 김설영 윤서진	



"High One+ Resort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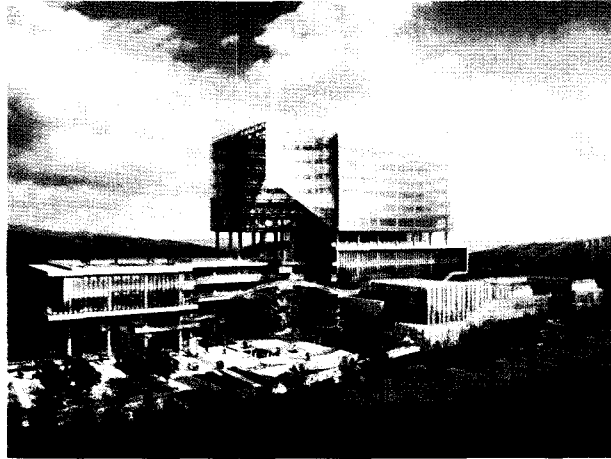
하이원 리조트 증축호텔은 하늘을 머금은 또 하나의 보석이라는 테마로 호텔 증축시설간의 연계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그리고 향후 계획중인 운암정(식객세트장)과 워터파크 휴양문화시설들과의 연계로 하이원 리조트의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계획의 주안점으로 첫째, 기존과 증축호텔이 하나 되는 혁신적 시너지 Only One 호텔. 둘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형 컨벤션 First One 호텔. 셋째, 통합형 행정지원시설과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Best One이다. 그리고 하나 더 워터파크, 카지노, 컨벤션, 스키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가족형 패밀리 종합 리조트 호텔로 변화를 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The One+이 되도록 하였다.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신축사옥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Incheon Headquarters Company

대지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요용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업무시설
건축면적	13,974.00㎡
연 면 적	6,462.44㎡
건 폐 율	51,525.93㎡
용 적 률	46.46%
규 모	368.73%
구 조	지하2층, 지상12층
주요마감	철근콘크리트조 로이복층유리 고밀도 목재패널, 강화유리
설 계 팀	대표: 이승연, 박기성 박노현, 장명석, 이창동, 조덕상 이정환, 이선영, 서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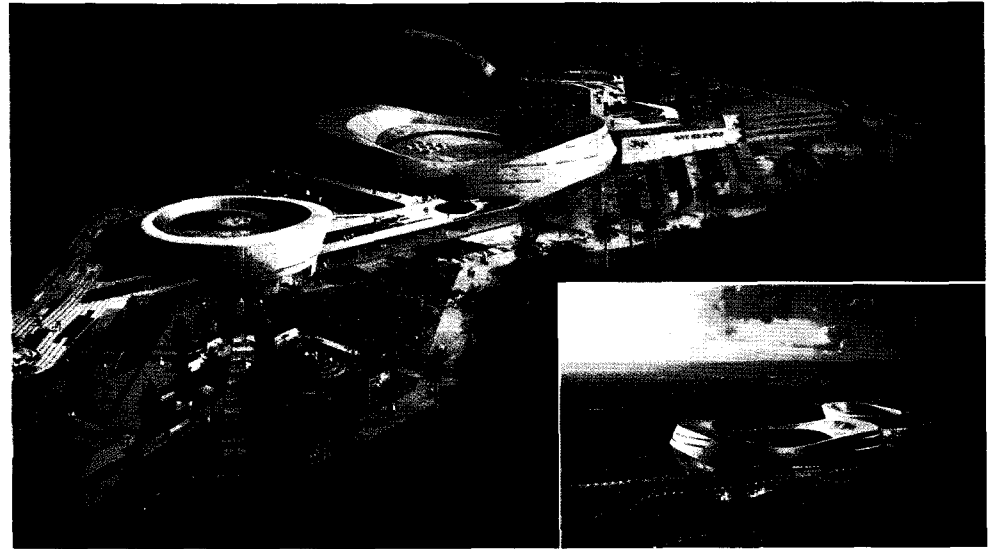


세 가지 테마로 도시 속에 자연을 놓듯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되었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는 외부에서의 다양한 녹지공간과 내부로 확장된 Eco-Space를 통해 이루어 지며, 그곳에 담겨진 공간별 프로그램으로 완결된다. 동서로 이어지는 진입에서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위요된 광장을 설치하고, 수직으로 확장된 비워진 아트리움 공간은 지역주민과 근무자 그리고 자연과 문화와 도시를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 남동공단의 유해공기와 수인선 철도의 소음 등은 완충녹지, 환경숲, 환경블럭의 세 단계로 걸러지며 중앙광장과 연계된 그린 발코니 설치로 내·외부 공간에서의 쾌적성을 제공한다.

제주서귀포 종합문화회관

Seogwipo Culture & Art Center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주요용도	문화시설
대지면적	39,674㎡
건축면적	6,038.14㎡
연 면 적	7,774.39㎡
건 폐 율	15.22%
용 적 률	10.23%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트러스 철상판 공법
주요마감	현무암, 목재패널, 칼라로이복층유리
설 계 팀	대표: 이승연, 김태명 심재한, 김현철, 최준섭, 강미주 정우정, 김익석, 정광문, 정미선 정승철, 신경철



제주의 새로운 두 개의 오름

삼매봉공원의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지는 제주가 그리는 풍경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 풍경 속에 두 개의 오름을 올려놓음으로서 제주가 가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상징성을 담아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오름으로 표현되는 두 개의 볼륨은 제주의 돌을 상징하는 전시장 매스와 바람을 상징하는 공연장 매스로서 제주의 자연요소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였다.

제주의 돌담길을 닮은 -CULTURE WAVE

삼매봉 공원 전체로 뻗어나가는 문화의 흐름은 공원의 초입부에 위치한 대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대지를 가로지르는 컬처웨이브는 하부에서 자연스러운 레벨극복을 통해 프로그램들을 연결시키고, 경사지를 활용한 입체적인 동선은 내외부프로그램들의 교류가 원활하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이 Culture wave는 낮고 길게 이어지는 제주의 돌담을 닮았으며, 이를 통해 제주가 갖는 문화의 고유성을 담아내어 지역주민에게는 친숙함을, 방문자에게는 제주의 전통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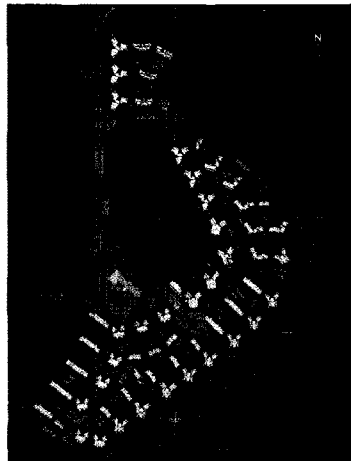
김포 고촌 수기 마을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Gimpo Sugi-maeul Apartment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지역/지구 2층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주거시설
대지면적 169,185.20㎡
건축면적 33,962.75㎡
연 면 적 511,661.45㎡
건 폐 율 20.58%
용 적 륜 214.11%
규 모 2,605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연진구조
주요 마감 콘크리트,수성페인트

(1,2층 회강석 물갈기)

설 계 팀 감성기, 박노현, 김민진, 장명석
김응석, 홍종덕, 조덕상, 정병용
신재영, 김미주



Art Community

'김포수기마을 힐스테이트'는 주변 근린공원과 인근 교통체계를 포함하는 거대 도시개발 사업단지이다. 서측과 산지와 고촌근린공원, 북측 천동근린공원, 동측 대보천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생태경관을 적극 활용하고 인간중심적인 공간구성, 테마형 단지형성을 통해 자연의 풍요로움과 도시의 편의성이 공존하는 자족형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각 단지는 산과 강을 이어주는 생태통로를 단지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생태공간을 체계화하고 자연형 계류, 벽천, 유실수원, 총림 등의 환경친화적 조경요소를 도입하여 사람과 생물, 인공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친환경 단지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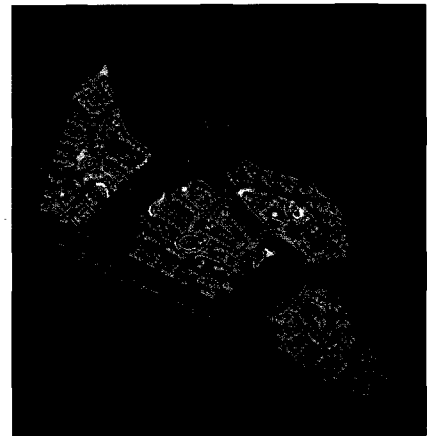
또한 로하스(LOHAS) 개념을 도입, 건강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단지계획으로 단지를 순환하는 웰빙 산책로/조깅로, 생태계류와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 가족단위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옥외 공간 조성을 통한 전체단지를 하나의 네트워크와 된 테마존으로 구성하였다.

신내3지구 아파트 기본계획 설계경기

Sinne Apartment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읍
지역/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주요용도 예정지구
대지면적 주거시설
건축면적 277,700.00㎡
연 면 적 40,676.62㎡
건 폐 율 1,307,596.47㎡
용 적 륜 14.65%
규 모 163.06%
구 조 5,780세대
주요 마감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수성페인트
(1,2층 회강석 물갈기)

설 계 팀 대표 : 박기성
박노현, 장명석, 이영희, 박권희
정우정, 염창선, 이정현, 이선영
우치훈, 서보민



"시와 음악이 흐르고 삶의 여유가 넘치는 ECO-POLIS를 구축"

□ GREEN Core - '단지내 환경정화'

- 단지 내 · 외부의 유해환경을 조율하는 환경정화장치
- 인접 자연환경과 연계하는 생태환경의 중심 - 단지의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유기적 통합

□ ECO Band - '지역문화 교류의 장'

- 단지내를 관통하는 생태벨트를 통한 기존자연환경의 회복으로 자연과 인간의 교감의 장소를 형성
- 단지 내외를 엮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

□ EVENT Wave - '다층 네트워크 구성'

- 전체 단지를 엮는 네트워크 구성 - 테마화된 가로계획으로 거주민의 활기찬 활동영역을 제공